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제213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애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가 만듭니다.

동아의 오늘이 단단해졌습니다. ABC 인증부수 2위를 탈환했고,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량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동아의 내일은 밝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면서,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동아가 만들어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 東亞日報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8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7 A FARM SHOW'의 한 코너 '청년농부 무비 토크'에서 농업 다큐멘터리 영화인 '파밍 보이즈'를 제작한 청년농부 3명이 자메이카 육산 수퍼스타 우사인 볼트를 연상케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 8월 25일 '2017 A FARM SHOW'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창업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오른쪽 아래). 글로벌인턴십 1기 인턴 5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글로벌 혁신센터(KIC)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위).



## ‘청년일자리 창출’ 이끌어가는 동아미디어그룹

### A FARM SHOW 취업멘토링 부스-채용관 방문 줄이어 청년드림센터 글로벌인턴십 1기 3명 실리콘밸리 취업

동아미디어그룹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마련하며 '청년 고용절벽'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업과 해외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시하고, 사상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농업에서 찾는 청년일자리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7 A FARM SHOW-지자체와 함께하는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취업 멘토링 부스'였다.

취업을 앞둔 고교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준비해온 취업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밀며 취업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했다. 개인에게 맞는 색상을 찾아주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부스는 여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반응이 좋았다.

A FARM SHOW는 '농림식품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한

국내 최대의 농업박람회로 평가받는다.

2014년 1회 때는 귀농귀촌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이후 벤처농부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으로까지 관심 분야가 확대됐다. 동아미디어그룹은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들 사이의 가교가 돼 농림식품산업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박람회를 찾는 청년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올해 박람회에선 청년들에게 농림식품 분야의 유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 동아미디어그룹이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 사이의 가교 역할

100여개 부스로 이뤄진 채용관에선 CJ제일제당, 농심, 빙그레 등 대기업들을 비롯해 축산, 산림, 농기계, 스마트 팜 등 농림식품산업의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참여해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농협 계열사들은 현장에서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 실리콘밸리인턴 취업 성공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마련한 '글로벌 인턴십' 1기 프로그램은 실시 6개월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글로벌 인턴십은 국내 대학생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인턴십 1기 인턴 5명 중 최한별 씨(22·여·세종대 4학년), 박일권 씨(24·서울과학기술대 4학년), 홍영기 씨(25·고려대 4학년) 등 3명은 각각 지니어스 팩토리와 펄즈시스템, 유젯의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았다. 지니어스 팩토리는 사내교육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펄즈시스템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유젯은 모바일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회사다. 이들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뒤 미국에서 정식 근무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턴십은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게 도전적 창업정신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청년드림센터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동아일보 청년드림캠프를 세웠다. 이어 국내에서 이공계 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미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

의 창업을 지원하는 실리콘밸리 글로벌혁신센터(KIC)에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했고, 지난해 11월 3개 기관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청년들을 위한 도전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주어진다. 최근 선발된 글로벌 인턴십 2기 인턴 5명은 8월 말 실리콘밸리로 출발했다.

#### 청년을 위한 일일 레스토랑

채널A <유쾌한 삼촌> 제작팀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7월 28일 <유쾌한 삼촌> 프로듀서인 제작본부 제작2팀 채성일 PD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펀딩 연재를 시작했다. 프로그램 제작노트 형식으로 방송 뒷이야기와 착한농부의 식재료를 소개하고,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후원을 받는다.

이렇게 모은 후원금은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연복, 강레오 셰프 역시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착한 농부들의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흔쾌히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프로젝트는 10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전략기획본부 사업기획팀 문권모  
청년드림센터 청년복지팀 노지현

## 동아일보 기업신용평가등급 우수... “성장 가능성은 더 뛰어나”

### 평가사에 의뢰... 부채비율 큰폭 낮춰 상위1% 수준 ABC 인증부수 2위 등 영향력-신뢰도 높이 평가

동아일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매우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경영실적, 수익 다각화, 성장가능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의미한다.

#### 높은 신용등급 비결은 재무건전성

동아일보는 7월 공공기관 용역사업 입찰을 위해 (주)나이스디앤비에 기업신

용평가등급을 의뢰한 결과 'e-2<sup>0</sup>' 등급을 받았다.

기업신용평가등급 e-2<sup>0</sup>는 '매우 우량한 신용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을 의미한다.

이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환산하면 AA<sup>0</sup>로, 전체 10단계 등급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간 3만 건의 기업신용평가 가운데 상위 1% 수

준이다.

높은 신용등급의 바탕은 바로 재무건전성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오면서 부채비율이 200%대에서 10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2872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3억 원과 266억 원이다.

같은 기간 경쟁사의 부채가 81억 원이나 늘어나며 부채비율이 600%대로 치솟은 것에 비하면 단연 눈에 띄는 성과다.

#### 미래가치도 반영

단단한 경영실적 외에 '미래가치'가 반영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등급 평가를 진행한 (주)나이스디앤비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신뢰도와 영향력, 사업 다각화 및 성장 가능성에 많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2017년 ABC 인증부수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인천공항 옥외광고 사업 수주 등 비(非)재무적 요소 역시 뛰어나다는 것이다.

채널A의 경우 공식적으로 회사채 등급 평가를 요청한 바는 없지만, 2016년 나이스신용평가는 자체 평가를 통해 채널A에 모형등급 A+를 부여한 바 있다.

채널A의 최근 실적과 높은 성장세가 고려됐다는 것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설명이다.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 한정연

# 참여율 100%... 감동적으로 물들이다

사원확장 캠페인 1달만에 확장부수 5만부 훌쩍 넘어  
'독자의 사랑으로 이어온 100년' 온·오프라인서 홍보



동아일보 홍보슬로건 이미지를 담은 리플렛(전단) 앞면.

'물들이다'라는 표어 아래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4개월간의 사원확장 캠페인이 막을 내렸다.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 전체가 빠짐없이 확장에 참여했으며 신문과 잡지 등 모든 매체를 합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다.

**신문-잡지 등 역대 최고 실적**  
이번 확장대회에서 신문과 잡지 등 확장부수는 5만부를 훌쩍 뛰어넘었다.

실적보다 의미가 큰 것은 그룹 임직원의 확장 참여율이다. 신문과 잡지 전 매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 사원확장 캠페인에 이어 2회 연속 참여율 100%를 달성했다.

동아가족 모두가 단 한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만든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데 참여한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확장방법의 발굴과 협력사의 지원이 더해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장기 독자 확보에 공을 기울였다. 장기 독자는 부수 확보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독자의 매체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캠페인 종료와 함께 매체별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개인 실적 우수시상에선 배극인 편집국 산업부장(1985부, 대상) 황재성 편집국 경제부장(835부, 금상), 전진태 재경국 구매팀장(808부, 금상)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단체 실적에선 재경국(1인 평균 141.5부)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논설위원실(평균 51.1부)이었다.

동아가족 모두가 단 한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만든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데 참여

## 동아 홍보슬로건 마련

동아일보는 올해 ABC부수공사에서 중앙일보를 제치고 2위를 탈환했다. 2015년부터 동아미디어그룹 전 사원이 사원확장을 위해 발로 뛰는 결실이다.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마케팅 본부는 '독자의 사랑으로 이어온 100년! 대한민국

대표 언론, 동아일보'라는 슬로건을 마련했고,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동아일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에선 전 계열사 홈페이지에 슬로건 이미지를 팝업창이나 배너로 게시하고, 지니 메일 하단 배너로 활용해 메일을 보낼 때 슬로건 이미지가 함께 전송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 홍보 슬로건을 담은 음원을 제작해 동아미디어그룹과 폴센터의 통화 연결음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슬로건 이미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다양한 행사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동아일보 신문을 발송하고 있는 400여대의 차량에 슬로건 이미지를 랩핑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마케팅본부 지원팀 김석호



사진=편집국 사진부 홍진환

8월 29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김재호 사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017년 사원확장 캠페인 매체별 실적 우수 수상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해외현장 둘러보며 새 사업모델 연구해올게요”

'글로벌 크리에이터' 선발 3명 곧 日-베트남으로 출발  
DNA 프린티어 1기 총 6명... 글로벌화 새 동력 기대

채널A 전략기획본부 이한나 피디는 요즘 일본 방송 프로그램과 도서, 편성표를 '열공' 중이다. 조만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하게 될 현지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해외 자료에 빠져있는 건 동아일보 AD본부 김성철 차장도 마찬가지. 점심 미팅을 활용해 전직 베트남 에이전시에 게 현지 정보를 얻고, 코트라(KOTRA) 리포트를 읽으며 베트남 공략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사내 단기탐방 프로그램인 '글로벌 크리에이터' 연수자라는 것. 이 피디, 김 차장과 함께 제작본부 박경식 피디까지 3명이 이 프로그램의 첫 연수자로 선발돼 올해 하반기 출발을 앞두고 있다.

### 글로벌 크리에이터 선발자 준비 한창

글로벌 크리에이터는 지난달 닷을 올린 사내 연수 프로그램 'DNA 프린티어'의 하나로, 최대 1개월간 자유롭게 해외를 돌아다니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트 시그널〉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 박 피디가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찾는 곳은 미국의 뉴욕. 10월 중순 '트렌드 없는 시대'를 주제로 뉴욕영화제, 미

국 최대 영상장비전시회 NAB SHOW 등을 둘러보며 크리에이터의 창의력 원천을 탐구하겠다는 포부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최대 1개월간 자유롭게 해외 현장체험

도쿄로 향하게 될 이 피디의 경우 세계 최대 통합 콘텐츠 마켓인 JCS(Japanese Contents Showcase) 및 NTV, TV아사히 등 민영 방송사 탐방을 주요 일정으로 잡았다.

### DNA 프린티어 연수 프로그램 선발자

프로그램	선발자
해외연수(1년)	· 동아일보 편집국 경제부 이상훈 차장 · 미디어랩A 마케팅기획팀 김기용 팀장(차장급)
어학연수(3개월)	· 채널A 보도본부 산업부 김진 기자
글로벌 크리에이터	· 동아일보 AD본부 미디어기획팀 김성철 차장급 · 채널A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이한나 PD · 채널A 제작본부 제작3팀 박경식 PD

이 피디는 “현장을 구석구석 들여다 보면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채널A 신규 프로그램 론칭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늦깎이 영어공부에 한창이라는 김 차장은 “베트남 공공부문의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사업을 살펴보면 베트남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 비영어권 국가 신청자가 78%

이들과 함께 7월 26일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선발된 DNA 프린티어 1기 연수자는 해외연수자 2명과 어학연수자 1명을 합쳐 모두 6명. 기자와 PD, 미디어경영 3개 직군이 골고루 선발됐고,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비영어권 국가 신청자가 78%에 달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들의 활약이 동아미디어그룹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 ‘도시 어부’ 시청률 낚아보세!



8월 4일 진행된 〈도시어부〉 포스터 촬영현장에서 출연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이덕화, 개그맨 이경규, 래퍼 마이크로닷.

### 신개념 낚시예능 이달 스타트 “진정한 낚시의 모습 보여줄 것”

신개념 낚시 예능인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이하 도시어부)가 9월초 첫 방송된다.

〈도시어부〉는 ‘낚시의 신’으로 소문난 연예인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황금어장으로 낚시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어부〉에는 진정한 낚시꾼의 모습을 보여줄겠다는 ‘낚시 무사’ 이덕화와 화려한 낚시 경력을 자랑하는 ‘낚시 도사’ 이경규, 그리고 떠오르는 ‘낚시 셋별’ 마이크로닷이 출연한다. 이들은 낚시 노하우뿐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과 공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7월 28일 전라북도 부안군 왕포에서 진행된 첫 촬영에서 이덕화, 이경규, 마이크로닷은 불꽃 튀는 낚시 대결을 펼쳤다.

이경규는 “이번 촬영은 녹화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다”고 첫 녹화 소감을 밝혔다. 이덕화는 “전 국민이 낚시꾼이 되길 바란다”며 다음 촬영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막내 마이크로닷은 “채널A 덕분에 낚시꾼의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낚시에 대한 애정으로 푹푹 뭉친 세 사람이 과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 “산뜻해요” “일할 맛 나요” 동아미디어센터 새단장 마쳐

### 편집국-보도본부 협업 쉽게 12~15층, 4개층 집중 배치 다목적룸에 카페형태 공간... 창의성 높이는 데 기여할 듯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의 환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시작돼 1년 여 동안 진행된 환경개선의 핵심은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공간 배치와 세련된 개방감을 통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이다.

#### 효율성 높이는 공간... 개방감-집중도 모두 고려

업무 성격이 비슷하거나 협업을 해야 하는 조직들을 한데 모았다. 가깝게 있다 보니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많아져 업무의 효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편집국과 채널A 보도본부를 12~15층 4개 층에 집중 배치했다. 통합뉴스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여러 층에 흩어져 있던 <정치데스크>, <이슈투데이> 등 5개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팀은 모두 3층에 재배치하고, 각 팀의 앵커와 PD, 작가가 모두 모여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21층과 18층에 나눠져 있던 분장실과 의상실을 18층으로 모아 채널A 출연자들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각 층 사무실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카펫과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들도 새 것으로 바꿨다.

#### 창의를 키우는 공간... 유연성-편의성 배려

공간 활용이 보다 유연해져 직원들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회의실 모든 집기에 바퀴를 달아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회의실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 19층 대회의실은 대형 행사가 가능하도록 음향시설까지 갖췄고, 빔 프로젝터도 2개를 달아 2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12~14층 3개 층에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각각 2개의 '다목적룸'을 배치했다. 빔 프로젝터 등을 설치해 회의나 발표를 주로 할 수 있게 한 공간과 동료 선배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공간을 마련한 것.

다목적룸 가장자리에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머리를 식힐 수 있

도록 유리벽 쪽을 바라보게 테이블을 배치했고, 안쪽에는 동그란 테이블과 산뜻한 노랑·빨강 톤의 의자를 놓았다.

“ 효율성 높이는 공간 배치, 창의 키우는 열린 공간 마련 ”

18층에는 쉽게 사무실 공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오피스'를 만들었다. 단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 업무나 각종 태스크포스(TF)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논설위원실은 개인별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새 단장을 마친 동아미디어센터가 '일할 맛 나요' 직장으로 거듭나면서 사무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환경 개선에 따라 변동된 층별 배치

층	동아일보	채널A	공용 공간
19	경영전략실	경영전략실	대회의실
18	재경국, 마이다스동아	의상실, 분장실	모바일오피스, 여자휴게실
17	콘텐츠기획본부, 동아E&D	-	남자휴게실
16	경영지원국	-	-
15	스포츠부, 정책사회부, 여론연구팀, 논설위원실	스포츠부, 정책사회부	뉴스룸지원팀, 회의실
14	편집국장실, 편집부, 정치부, 사회부, 뉴스디자인팀	정치부, 사회부	다목적룸 1-2
13	경제부, 산업부	보도본부장실, 경제부, 산업부, 편집부, 보도제작팀, 뉴스이노베이션팀	다목적룸 1-2
12	문화부, 국제부, 오피니언팀, 사진부	문화과학부, 국제부, 국제부 모니터실	디지털통합뉴스센터, 다목적룸 1-2
11	편집국 화상파트	채널A뉴스비전	회의실
10	AD본부	-	회의실
9	미래전략연구소, 청년드림센터, 편집지원팀, 인터뷰	-	-
8	노동조합, 스포츠동아	-	-
7	동아닷컴	경영지원본부, 심의실	-
3	-	보도·시사프로그램 제작팀	-



환경 개선으로 바뀐 공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뉴스룸(①), 활용성을 더한 대회의실(②), 집중도를 높인 논설위원실(③), 편의성을 고려한 다목적룸(④, ⑤), 새로 꾸민 의상실(⑥)

## 상암DDMC 공간활용도 높이고 충정로에도 수면-수유실 갖추

### 상암동 5, 6층 복도 끝 라운지 회의실 만들어 업무집중도 높여

채널A의 제작 허브인 상암 동아디지털 미디어센터(DDMC)의 업무 공간이 크게 늘었다. 2015년 완공된 상암 DDMC의 공간 사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

으로 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 상암DDMC, 공간활용 ↑

복도 끝에 위치해 이용자가 적었던 5층과 6층 복도 끝 라운지는 2개의 회의실로 탈바꿈했다. 이 회의실은 '김현욱의 굿모닝' 팀과 채널A B&C가 사용한다. 그동안 2개의 회의실에 나눠져 있었던 김현욱의 굿모닝팀은 한 공간에 모여 활발히 소통할 수 있게 됐다.

5층에 위치한 'Think 라운지'에도 유

리 칸막이를 설치해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었다. 각종 태스크포스(TF)의 업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층에 4개의 편집실을 추가 설치했다.

#### 충정로 사옥, 사원 편의성 ↑

충정로 사옥은 사원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3층에는 최대 8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실과 수유실,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여자 휴게실을 만들었다. 또 9층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중형 회의실을 만들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상암DDMC 'Think 라운지'에 만들어진 회의실(왼쪽), 북카페처럼 꾸민 공간과 수면실로 이뤄진 충정로 사옥 여자 휴게실(오른쪽 위·아래).

# 미래의 뮤지컬 이끌어갈 스타, 동아일보가 찾아서 키운다

### ‘뮤지컬 콩쿠르’ 신설... 총 340명 기량 겨뤄 주니어음악콩쿠르도 만들어 4개 악기 경연

한국 문화예술계의 대들보를 앞장서 발굴하고 키워온 동아일보가 미래 뮤지컬 스타 찾기에 나섰다.

#### 수상자들, 뮤지컬 공연에 캐스팅

8월 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흑석동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동아뮤지컬콩쿠르’에는 일반부 200명, 중등부 및 고등부 140명 등 총 340명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돈키호테’ ‘캐츠’ 등 유명 뮤지컬에서 곡을 선택해 가창과 연기 실력을 뽐냈다. 심사에는 연출가 이윤택 씨,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뮤지컬 배우 최정원 김소현 씨 등 한국 뮤지컬계를 이끌어가는 거장과 중진들이 참여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뮤지컬 공연에 주연 또는 조연으로 캐스팅될 예정이다.

우리 문화계 재능 있는 예인들을 키워 온 동아일보가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동아뮤지컬콩쿠르를 신설한 것.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사를 통해 ‘문화주의’를 3대 사시 중 하나로 제창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운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광복 이후에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문화

융성과 새로운 스타 발굴에 앞장서 왔다. 1956년 창설된 ‘국수전’은 조남길 김인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9단 등 대한민국 바둑계의 국수를 배출해 왔다.

“동아, 우리 문화계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예인들을 발굴 및 육성”

1961년 시작된 ‘동아음악콩쿠르’는 1회 대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신수정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강충모 김대진, 지휘자 임현정, 성악가 영광철 임선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강동석 등 한국 음악계 스타를 배출했다.

1964년 창설된 ‘동아무용콩쿠르’는 김혜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무용원장을 비롯해 발레리노 이원국 김용걸, 발레리나 김주원 박세은 황혜민, 안무가 홍승엽 차진엽 등 스타 무용가들을 배출했다.

같은 해 출발한 ‘동아연극상’에서 역대 연출상을 수상한 김정옥 임영웅 오태석 씨 등은 한국 연극계의 주축이 됐다.



제1회 동아뮤지컬콩쿠르 수상자들이 8월 2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의 권소영 정연우(이상 중등부 수상자) 김수민 정민석 임다희(이상 고등부 수상자) 정승민 임효원 윤태호(이상 대학·일반부 수상자).

1985년 시작된 ‘동아국악콩쿠르’ 역시 판소리 부문의 왕기석 왕기철 유태평양, 해금 부문의 정수년 강은일, 피리 부문의 원일 등 국악계의 간판들을 키워냈다.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신설**  
새로운 스타 발굴을 위한 동아일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양악 분야를 필두로 재능 있는 예인들의 성장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을 감안해 올해 ‘동아

주니어음악콩쿠르’를 신설했다.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4개 악기를 대상으로 초·중·고등부 고등부 경연이 열릴 예정이다.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유윤중

동아일보 대표 문화예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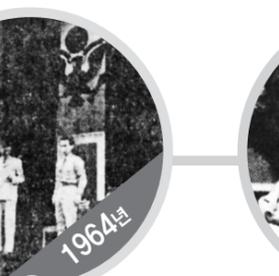
제1회 국수전



제1회 동아음악콩쿠르



제1회 동아무용콩쿠르



제1회 동아연극상



제1회 동아국악콩쿠르

## 東友는 몸신이다

### 순환 UP, 부기 DOWN... 종아리 보톡스 운동

하체 혈액순환의 핵심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다리까지도 달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간단한 종아리 근육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신》에서는 하체 혈액순환을 돕는 ‘종아리 보톡스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꾸준히 따라 하면 종아리 부기를 빼고 탄력 있는 종아리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맥주병을 종아리의 중간 부분에 놓고 앉아 자극을 줍니다. 맥주병을 종아리 아래쪽으로 옮겨 같은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다음으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10초간 유지한 후 하이힐을 신은 것처럼 발뒤꿈치를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어 다리를 접고 10초간 고관절을 이완시킨 후 앞의 동작들을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운동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맥주병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놓는다. 맥주병 위치를 바꿔가며 중앙, 좌, 우 10초씩 눌러준다.



③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잡고 쪽 편 후, 자세를 10초간 유지한다.



② 손으로 바닥을 짚고, 발바닥을 붙인 상태로 10초간 유지한다. 이후 하이힐을 신은 것처럼 발뒤꿈치를 들고 10초간 유지한다. 3회 반복.



④ 다리를 접고 10초간 고관절을 이완시킨다. ③, ④동작을 5회 반복한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한다.

### “재테크 전략 1대1 상담” 2017 동아재테크·핀테크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7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9월 15,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막 내린 저금리, 닷 올린 새정부... 격변하는 금융 환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부동산, 주식·펀드, 세금 등 관련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테크 고수들의 연속 특강이 진행된다.

또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프라이빗뱅크(PB)와 세무사, 부동산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30분간 일대일로 재테크 전략을 상담할 예정이다.

행사장 입장과 상담은 모두 무료이다. 홈페이지(www.dongafintech.com)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